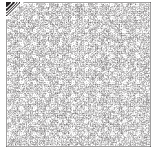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07호 2020년 10월 11일(가해)

연중 제28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제1독서 | 이사 25,6-10ㄱ

화답송 | 시편 23(22),1-3 ㄱ.3ㄴㄷ-4.5.6(◎ 6ㄷㄹ)

◎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
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
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
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
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 필리 4,12-14.19-20

복음환호송 |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복 음 | 마태 22,1-14<또는 22,1-10>

영성체송 |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양천성당 주임 겸 제18양천지구장

|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가까운 과거에 다른 많은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 같은 면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것과는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역병’으로 야기된 상황은 우리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은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많은 종교인이 그런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오로의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필리 4,12)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혹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고 사는 정신을 일컬어 공자는 ‘안빈낙도(安貧樂道)’라고 하였습니다. 원래는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것’을 뜻하지만, 사도 바오로의 말씀과 통하는 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안빈낙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오로의 확신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하늘나라로 초대하시지만, 그 초대에 제대로 응답해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석한 이들은 소수였듯이,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이들 역시 소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온갖 모임이 취소된 요즘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 코로나와 상관없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들, 그들을 돌보는 일에 여념이 없는 방역 종사자들과 의료진들,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 9일 기도, 혹은 렉시오 디비나 등을 시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산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좋은 결실을 맺는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3)



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빛의 존재,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것이 아니라고 손을 내어 주는 등대 같은 존재. 그 빛이 있기에, 그 빛을 믿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 대답을 사는 삶

미국 피츠버그에서 말리의 4번 교향곡을 녹음할 때였습니다. 몇몇이 함께 녹음본을 듣고 의견을 나누던 중 지휘자가 갑자기 양해를 구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한 시간쯤 지나 그가 돌아올 때까지 모두 태연하게 휴식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이 없던 다음 날엔가, 마침 숙소 근처의 성당에 매일 정오 미사가 있다길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거기서 성체를 모시고 나오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그 미사를 드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뜬 것이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상임을 맡으며 미사 시간 배려를 약속을 받았다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묵주기도는 물론, 매일 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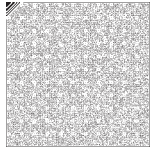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연주여행 중에 낯선 나라와 도시에서, 가까운 성당과 일정에 맞는 주일 미사를 찾기도 보통 어렵고 귀찮은 일이 아닌데, 오스트리아에 살면서 대륙을 수없이 횡단하는 그가 미사를 매일 드린다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신앙을 가진 음악가 찾기는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성당에 나가는 것이 몸에 배긴 했지만 얄은 믿음에, 의심도 많은 저는 신기한 사람을 만난 듯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 비즈니스가 아닌가. 분명 성공으로 가는 길과 신앙에서 가르치는 바가 충돌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느냐?” 돌아온 그의 대답은 차분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고 타고난 재능이 있어 음악가가 되었으니, 내가 추구하는 음악을 최대한 잘 펼쳐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 보다 뛰어난 오케스트라들과 작업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 그런데 나중에 하늘에 가면 그분은 내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너 베를린 필 지휘해봤어? 밀라노 스



임선혜 아네스 | 성악가



칼라 극장은 몇 번이나 서 봤지? 뉴욕엔 못 갔구나!’ 과연 그러실까? 아닐 거다. 나는 그분이 물어보실 질문에 대한 답을 살려고 한다.”

눈과 머리가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현실 속의 딜레마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명료한 기준이 있었고, 그것은 바로 세상 마지막 날에 만나리라 확신하는 그분, ‘하느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지휘자이지만 어떤 것이 그의 음악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지, 그 비밀을 알아낸 듯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탈렌트를 그걸 허락한 분의 방식으로 열 배, 스무 배로 불러내는 진정으로 멋진 음악가의 존재가...

자신의 남다른 신앙생활이 종종 비웃음을 산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저도 용기를 내어봅니다. ‘물어보실 것에 대한 대답’을 살아볼 용기를...

다음 날 미사에도 어김없이 나타난 그와 멀찍이서나마 아주 특별한 ‘평화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를 이끄는
성경구절



오현희 세실리아
불광동성당

그날의 『시국 담화문』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1980년 5월 18일, 서울주보 2면에 특별한 담화문이 실렸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국 담화문’. 주교단은 당시 시국에 대한 큰 우려와 함께 천주교의 분명한 입장을 5항에 걸쳐서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공약한 민주 헌정 확립과 평화적 정권 이양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국 담화문 1항). 만약 이 공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민적 단합이 깨지고 정국의 혼란과 국가 안보의 기틀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 담화문의 깊은 우려는 그날 바로 비극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신군부가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살해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신학생들이 거리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당시의 시국은 위기였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남녀 대학생들의 시위 물결이 휩쓸고 있었습니다. 5월 내내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주로 ‘전두환 퇴진’, ‘계엄령 해제’와 ‘유신헌법 개정’을 외쳤습니다. 시위 대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매일 늘어나자 경찰들은 중앙청, 청와대, 시청 등 중요 장소들을 지키면서도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을 계속했습니다. 5월 14일, 대신학생들은 시국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는데, 당시 맨 앞줄에서는 경찰의 무차별 진압으로 피를 흘리는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5월 15일에는 약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서울역 중심으로 모였지만, 대학생 대표들이

군대에 의한 유혈사태를 걱정하여 자신해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유명한 ‘서울역 회군’입니다.

당시의 시국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1980년 5월부터 신군부의 정치 관여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학생 시위가 대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5월 17일 24시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전국의 주요 시내와 대학, 중요기관들에 계엄군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광주에서는 18일 주일날에도 시위를 계속했고 계엄군은

초기부터 무자비한 강경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부상자도 수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울주보 곳곳에도 이런 아픈 역사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시국 담화문’은 서울주보 역사에서도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1978년에 시작되어 당시 만 2년이 된 서울주보는 단순히 전례지, 교회 소식지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 정의와 인간 존엄에 관한 교회의 메시지를 내는 매체로서의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신군부에 의한 언론의 탄압이 심한 상황에서 교회의 분명한 의지 표명은 서울주보의 여정에 한 단계 발전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국 담화문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

오늘의 우리 시국은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 특히 학원 사태와 노사분규를 비롯한 제반 국내문제와 계속 진박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우리 나라는 조속히 민주 헌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적 단합을 이루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시국은 아직도 개헌의 조정이 불투명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 국민 시도를 잘라놓는 불신의 정막은 너무나 두텁다. 이에 북돋움에 따라 모든이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선포함으로써 이 거대한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천주교 주교단은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이 시기에 국민적 단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위해 우리는 모두 애국 애족하는 마음과 함께 진실하고 정직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믿음을 회복시켜야 하겠다. 특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강화 회복은 시급하다. 정부가 공약한바 있는 민주헌정 확립과 정권 이양은 반드시(조속한 시일내에) 실현되어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땅에서 정치 불신은 모든 인간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민적 단합은 기댈할 도리가 없어지며 굶기아는 여기서 초래될 정국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국가안보의 기틀마저도 흔들릴 염려가 크다.

2. 국민적 단합을 위해 우리는 모두 회개의 정신과 아울러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철저히 살아야 하겠다. 먼저 우리자신을 포용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 각계의 지도층은 국민 대중앞에 지난날에 있어 국민을 오도하거나 혹은 부정과 불의에 타협함으로써 법한 과오를 깊이 뉘우치는 겸허와 회개의 정신을 가져야 하겠다. 특히 국민적 합의에 의해 유신헌제가 부결된 헌단에서 과거의 정치적 과오에 책임의 일인이 있는 인사들은 오늘의 민주발전 추진과정에서 역사의 순리에 따라 회개의 정신과 자숙을 보여주기 바란다. 동시에 국민대중은 장차 정의와 아울러 사랑을 앞세워 역사를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겠기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이들을 화해의 정신으로 포용

하는 아량을 지녀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 현 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있지않고 인간 존엄성과 그 기본권을 참으로 존중하고 국민 모두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민주적 정치와 경제 및 문화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을만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에 정치인들은 물론이요 우리는 모두가 금력이나 권력에 대한 일체의 욕심을 버리고 인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아울러 애국애족하는 정신으로 오직 겨레와 나라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우리는 또한 민주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과거 민주와 투쟁 대열에서 독특한 시련을 겪은 이들중에서 어떤이들이 아직도 완전히 석방, 사면, 복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새 민주헌정의 기초를 이루어야 할 인간존중과국민적 화합을 위해서도 이들의 석방, 사면, 복권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지닌 젊은 질서의식과 애국심을 위정자들은 충심으로 인정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하여 되도록 속히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는 것만이 시국의 불안을 해소하는 절정임을 거듭 재언하는 바이다.

5. 우리나라가 이같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삼아 새로운 민주 헌정 체제를 확립하므로 이제 그 누구도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이가 없을 만큼 정의롭고 밝은 사회가 될때에 이 나라는 진정한 국민이 일체감을 느끼고 아끼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도 더욱 발전하고 국가안보도 참으로 공고히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겨레의 염원인 남북의 평화적 통일 역시 이 정신과 이 힘 위에 이룩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시련인 동시에 희망의 계기인 현 시국에 일체 국민모두가 양심, 정의, 성실을 다하고 정서를 지킴으로 민족의 운명을 영광된 역사의 단계로 이끌어 나가자고 호소하는 바이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8년 10월12일 최상준 시몬 신부(33세)
- 1986년 10월18일 김진하 요한 신부(62세)
- 2001년 10월14일 박성춘 레오 신부(86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목주 기도 성월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목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구장일림

10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10월12일(월)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자살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대상: 자살로 소중한 이를 잃은 모든 분
문의(신청):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1) 자살 유가족을 위한 10월 월례미사

때: 10월17일(토)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명동)

2) '상실에서 희망으로' 유가족 8회기 모임

때: 10월22일~12월10일 매주(목) 19시(8회)
곳: 가톨릭회관(명동)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
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지구별 상담소: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
당), 13지구(삼성산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서울가톨릭미술가회창립 50주년 기념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전관
전시일정: 10월7일(수)~19일(월)

2021년 명동대성당 혼인예약 안내

1월~2월: 7월29일(수)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화~일)
3월~12월: 10월23일(금) 14시, 명동대성당

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필수준비사항: ① 교직증명서 1부(신랑,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안내' → 혼인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74-1784
추첨 일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 계신 분들(한인성당 교적자 제
외)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성사를 받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
드시 혼인 추첨 당일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첨 이후 혼인예약 현황은 11월4일(수)부터 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2022년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봉사자 모집

분야: 진행팀(교육 전반 운영에 협력)
때, 곳: 첫째주 또는 셋째주(토), 서울대교구청(명동)
접수: 신청서(사목국 홈페이지 참조)를 작성하여 10
월31일까지 이메일 접수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직원모집

영등포동성당 사무장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행정·
회계 업무 및 PC 가능한 분 / 문의: 02)2631-8657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0월15일(목)까지 방문·우편(우 07253, 서울시 영
등포구 버드나루로5길 9 영등포동성당)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채용 서류는 채용 확정 후 안전하게 폐기하겠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스승예수제자수녀회	10월18일(일) 13시30분~16시30분	본원(미아리)	010-9816-0072(pddm.or.kr)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0월17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젊은 부부를 위한 몸 신학 피정(ICPE 선교회)
때: 11월21일 10시~22일 17시 / 문의: 010-3889-1272
곳: 마리스타 교육관 / 대상: 30~40대 부부 선착순 10쌍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효소단식으로 몸 속에 쌓인 독소·노폐물·체지방을 없애고 성체신심세미나를 통해 성체신심의 은혜를 재발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육 간의 건강과 자연치유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피정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지도: 노경덕 신부(본원) / 문의: 010-9363-7784 신 글라라
때: 10월23일~26일·11월13일~16일·11월27일~30일·12월4일~7일·12월18일~21일
곳: 성 도미니코수도원(주최, 수유동)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2차	11월6일(금)~14일(토)	문의: 061)373-3001,
제83차	11월27일(금)~12월5일(토)	010-3540-9001

수도전통 렉시오디비나(상지피정집)
말씀 안에서 체험되는 깊은 하느님과의 만남 /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10-9401-9374 마리노아 수녀, 02)923-3547

때	11월3일~12월22일 매주(화) 10시~12시30분(8회)	회비:
	11월5일~12월24일 매주(목) 14시~16시30분(8회)	12만원
	1 렉시오기초반 11월20일(금) 16시~22일(일) 15시	회비:
	2 렉시오기초반 12월11일(금) 16시~13일(일) 15시	16만원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예수마음 피정의 집(문산) / 지도: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10월24일(토)~25일(일), 11월7일(토)~8일(일)
3박4일	10월29일(목)~11월1일(일), 11월26일(목)~29일(일)
8박9일	10월12일(월)~20일(화), 11월16일(월)~24일(화)
40일	10월6일(화)~11월14일(토), 12월22일(화)~2021년 1월30일(토)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교육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접수): 010-9099-2337 / 홈페이지: www.jesumaum.org

예수마음 기도	2박3일 10월16일(금)~18일(일)
이냐시오 영신수련	2박3일 10월16일(금)~18일(일)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기본 10월23일(금)~25일(일)
21세기 흔들리는 모성 (부모들을 위한 특별강좌)	10월19일(월) 오전 10시~12시
분노 다루기 연수	10월30일(금)~11월1일(일)

교육

성물조각·영성가구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복음화학교 141기 온라인 개강
복음화학교 141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공개)에 초대합니다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때: 10월12일(월) 10시·10월14일(수) 19시·10월15일(목) 14시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1년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 입학전형: 11월30일(월) 14시
원서접수: 11월2일(월)~13일(금) 17시
문의: 02)2258-7076 대학원교학팀, 02)2258-7107 친교실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학교 밖 청소년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14세~24세
활동: 진로진학 상담, 자기계발, 문화체험 등
중추, 고졸 검정고시준비반 상시 운영
곳: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역촌동성당 3층)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지도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접수): 02)382-5652 / 홈페이지(www.ju.or.kr) 참조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밖(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교생)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3D프린팅·도예 등), 문화지리교육,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지원교사모집: 검정고시 교과 멘토링, 탁구 동아리 지도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신원3동) / 02)2691-6543

벨칸토 발성 아카데미
대상: 성가와 가곡을 부르고 싶은 가톨릭 신자(성가대원·성가대 희망자, 비신자)
내용: 발성이론(원리·실습·호흡법), 가창실기(성가·가곡)
때, 곳: 11월10일~12월29일 매주(화) 오전반 10시~12시 15분·저녁반 19시~21시15분(8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7층 체질리아홀 / 인원: 오전반·저녁반 각 25명
회비: 18만원(OT 이후 환불 불가)
문의(접수): 02)6364-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10월·11월 특강
주제: 기도-하느님과 나(10월), 두려워 말라(11월)
때: 매주(금) 15시30분~16시30분
곳: 성 정하상 기념경당 / 문의: 02)3147-2402

10월16일	사승환 신부	10월23일	마진우 신부
10월30일	조명연 신부	11월6일	김민호 신부

모집

국악성가연구소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션: 매주(금) 19시
대상: 가톨릭 신자 여성(65세 미만), 남성(67세 미만)
연습: 매주(금) 18시~21시30분, 양재동성당 지하강당
오디션곡: 자유곡 / 문의: 010-3733-6526, 010-9132-1318

미사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미사
때: 10월16일(금) 10시~13시 / 성시간, 묵주기도, 미사
곳: 가톨릭회관 / 코로나 대응 위해 40명 제한 접수 필수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성가정입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1) 성가정입양원 후원자 및 입양가족 미사
때: 매월 셋째주(일) 오전 11시
2)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 모집
문의: 02)764-4741~3(www.holyfca.or.kr)

인내

자기돌봄명상(서울포교베네딕도고척상담센터)
문의(접수): 010-6388-2665 최 막달레나 수녀

불길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문제, 개인, 부부, 가족, 여성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첫회 무료)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상처입은 마음치유와 가족관계의 회복: 10월20일~12월22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10주)

2021년 중립동약현성당 혼인 예식 추천 안내
추천: 10월18일 오후 3시(안내 후 추천, 중립동약현성당 / 문의: 02)362-1891(www.yakhyeon.or.kr)
준비물: 교적 사본 / 예약금 60만원(카드 불가)
자세한 사항은 본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2021년도 1월, 2월 혼인예식은 홈페이지 확인 후 선착순 예약받습니다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운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서울시 위탁)
회비: 언어상담 20회 10만원, 매체상담 20회 60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 / 문의: 02)2051-3743
카카오채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검색 후 채널 추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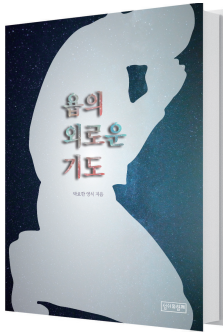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여성의 전화 상담

여성 전화상담	(월~금) 10시~16시 / 문의: 02)990-9366
대면상담	우울·불안, 가족갈등, 대인관계 / 문의: 02)990-9360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공황, 불안, 우울, 가족, 부부, 여성
소장: 이찬 신부(골룸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문의: 010-9295-5912 / 홈페이지: www.dstcoun.net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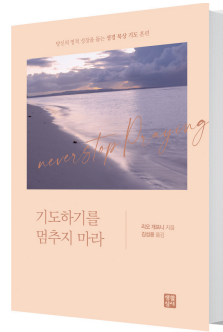


신간

옴의 외로운 기도

박요한영식 지음
성서와함께 | 356쪽 | 2만원
문의: 02)822-0125

고대부터 고통을 다룬 현인들의 글은 여럿 전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빼어난 작품이 구약성경에 포함된 옴기이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옴의 여정은 멀고 외롭고 치열하다. 저자는 옴과 동행하면서 그의 마음에 공명하며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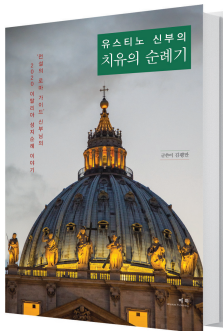


신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리오개프니 지음
생활성서사 | 231쪽 | 1만3천원
문의: 02)945-5987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 읽기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모두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며 깊이 머무는 법을 알려 주는 '성경 묵상 기도' 안내서로,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우리를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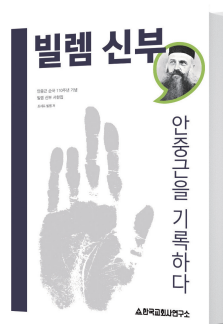


신간

유스티노 신부의
치유의 순례기

김평만 지음
예지(Wisdom) | 288쪽 | 1만8천원
문의: 031)900-8061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해외로 성지 순례를 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책은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의 기적의 순례 보고서이다. 저자가 로마의 골목골목을 누빈 개인 경험을 담았으며 지식은 물론 영성과 역사의 교훈이 녹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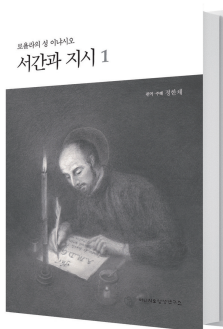


신간

빌렘 신부,
안중근을 기록하다

조제프 빌렘 지음
한국교회사연구소 | 464쪽 | 2만2천원
문의: 02)756-1691(내선 2)

위털 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형 집행을 앞둔 안중근 토마스에게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집전했던 파리 외방전교회 빌렘 신부가 황해도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남긴 친필 사목 서한을 번역한 자료집이다. 안중근과 그 가문의 신앙생활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신간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서간과 지시 1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지음
도서출판 이냐시오영성연구소
238쪽 | 1만5천원 | 문의: 02)3276-7794

예수회의 설립자 이냐시오 성인의 편지를 선별해 묶은 책이다. 성인은 예수회원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격려했다. 이 편지들을 통해 예수회의 영성과 사명, 예수회원으로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적 식별과 판단, 영신수련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사랑 아니면 두려움

이현주 지음
분도출판사 | 296쪽 | 1만9천원
문의: 02)2266-3605

세상에 알려진 여러 수행법들의 공통점을 하나 꼽으라면 수행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사는 길을 모색한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구체적인 마음공부의 방법을 배울 뿐 아니라, 수행자의 길이 어떤지, 수행자라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774-1784(☎)
753-1784(FAX)

본당 연방회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이길재(베 드 로)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10월 예비신자 교리반

수도권 지역 추석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에 따라 10월 11일(주일)까지 「종교시설 집합제한 명령」이 연장되어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었던 '예비신자 환영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입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설된 2개 반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첫 수업일에 해당 강의실로 가셔서 현장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반	오후7:30	교구청본관 401호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주일반	오후4:00	교구청본관 402호	최 마리세레나 수녀

※첫 수업 : 목요반-10월 15일, 주일반-10월 18일
※각 반 50명씩 첫 수업 당일 선착순으로 접수
※각 반 접수 인원이 20인 이하일 경우 합반으로 운영

◎ 2021년도 명동대성당 혼인 예약 안내

·1월~2월 ☞ 7월 29일(수)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중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주일 내방 요망)
·3월~12월 ☞ 10월 23일(금) 오후 2시
'대성전'에서 추첨 !

혼인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파밀리아 채플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예약금 납부는 계좌이체 ·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본당 홈페이지(www.mdsd.or.kr)→혼인성사 안내에
게시된 '혼인 미사 안내문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추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추첨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 주십시오.
※해외에 계신 분들(한인성당 교적자 제외)은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혼인성사를 받기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오시고, 이를
혼인 추첨 당일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첨 이후 혼인예약 현황은 11월 4일(수)부터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교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 10월 18일은 연중 제 29 주일이자 전교
주일로, 매 미사마다 물질적 · 영적 궁핍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지역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 위령의 날 미사 》

11월은 「위령 성월」로서 주님의 자비에 맡겨진
죽은 모든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입니다. 11월 2일(월)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
하는 위령의 날」로, 당일 모든 미사는 세상을
떠난 조상, 가족, 은인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위령미사에 미사 지향 접수하실 분
들은 11월 1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접수
하시거나 당일 합동 위령미사 시작 전, 제대 앞에
마련된 봉헌함에 직접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합동 위령미사 ☞ 오전 7시, 10시 / 오후 6시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종횡계획 2단계 기금

(9월 14일 ~ 10월 4일 : 302,684,080원)

누계 : 1,843,099,203원

2020년 상반기 본당 수익금 : 302,534,080원
익 명 : 100,000원 | 이 경 선 : 5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54일 기도 모임 취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는 대입 수험생들을 위한
54일(10월 10일~12월 2일) 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9/21-9/27).....26,463,130
· 연중 제 26 주일 헌금.....12,245,000
· 감사헌금 (9/21-9/27).....2,459,800
김 유스티나 / 백 안젤로 / 양 크레센시아
이 미카엘라 / 이 스킨라스티카 / 임 사무엘
전 마리아나 / 정 안젤라 / 황 아녜스
익명(3)

· 교무금 (9/28-10/4).....22,156,000
· 연중 제 27 주일 헌금.....11,405,000
· 군인 주일 2차 헌금.....6,083,000
· 감사헌금 (9/28-10/4).....7,830,000
고 니콜라오 / 김 베드로 / 도 로사
박 베드로 / 박 아녜스 / 박 아브라함
박 에테니아 / 박 요셉 / 유 베드로
이 마리아 / 이 켈마 / 임 글라라 / 임 사무엘